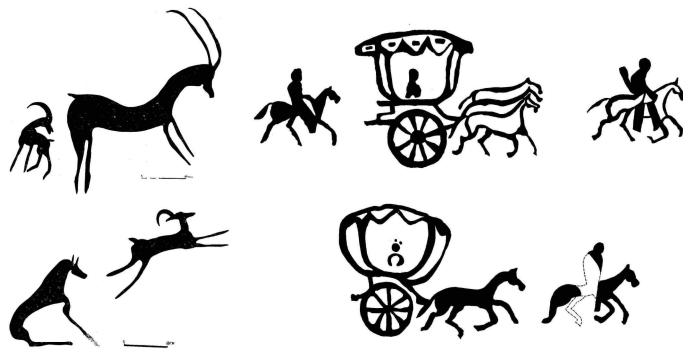


사 진 자 료



<타미린 울란 호쇼 홍노 무덤 출토 금제 귀걸이>

타미린 울란 호쇼 홍노 무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굴 조사되었으며, 홍노시대 무덤 30기와 약 5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덤은 피장자가 동쪽으로 향해 있고, 말 뼈 부장 풍습이 드물게 확인되며, 무기류에 비해 토기가 더 많이 부장되는 등 일반적인 홍노 무덤과 매장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출토품으로는 각종 금·은제 장신구, 마구 장식, 무기, 생활용품, 토기 등이 있는데, 특히, 다양한 형태의 금제 장신구를 통해 홍노시대 금공품의 예술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야만 오스 암각화에 그려진 산양(왼쪽), 마차와 승마(오른쪽) 그림>

몽골에는 다양한 시대의 암각화 유적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약 200여 곳이 넘게 발견되었다. 암각화는 당시 홍노인들의 신앙, 생활상, 예술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암각화 중에서도 몽골 서부에 위치한 야만 오스 암각화에는 홍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인 산양과 함께 마차와 승마 장면도 그려져 있다. 특히 양산을 씌운 마차 그림은 실제 무덤에서도 출토되는 마차와 동일하여 흥미롭다.



<치헤르틴 저 무덤 출토 마차>

흉노인들에게 말은 주요한 이동 수단이자 전쟁 시 주요한 무기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했는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각종 마구(馬具, 말갖춤)와 마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차는 무덤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특히, 최상위 계층의 대형 무덤에서만 확인된다. 마차의 종류에는 사륜마차와 이륜마차 두 가지가 있는데, 사륜마차는 2017년 치헤르틴 저(Chikhertiin zoo) 무덤에서 출토된 두 대의 마차가 유일하다. 이러한 마차들은 중국 한나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흉노가 자체적으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골 모드 II-1호 무덤 출토 금제 장식>

대형의 귀족 무덤으로 알려진 골 모드 유적의 II-1호 무덤에서 출토된 마구이며 드리개로 추정된다. 원형으로 두드린 순금판에 앞면에는 고부조 형태의 타출기법으로 형상을 만들고, 터키석과 붉은색의 보석을 감입하여 장식성을 더했다. 머리는 표범, 몸은 용, 머리에 하나의 뿔이 달린 신화적 동물(일각수)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물은 흉노 시대 최상위 계층에서 사용한 위신재였을 가능성이 있다.